



## 전세계 휩쓴 '한드'

'오징어게임' '지옥' 등으로 미국 내 한드 시청률 200% 증가 브라질에선 '갯마을' 패러디까지

"TV 혁명의 여명(the dawn of a TV revolution)."

세계를 휩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에 대한 영국 BBC의 평가다. 2021년, '오징어게임'을 비롯한 한국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였다. '오징어게임'은 전 세계 1억4000만명 이상이 시청해 넷플릭스 역대 최대 시청 드라마로 등극했다. KBS 2TV '연모', tvN '갯마을 차차차' 등도 '지옥'과 '마이네임'과 함께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전 세계 '많이 본 TV쇼(프로그램)' 부문 상위권에 장기간 이름을 올렸다.

BBC 등 해외 언론은 이 같은 한국드라마의 성공이 "2022년과 이후 콘텐츠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 "미국의 한국드라마 시청률, 200%"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미국 등 해외 매체들이 한국드라마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오징어게임' 등 한국드라마가 "일상과 밀접한 소재를 쉽게 전달하면서 세계적으로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넷플릭스의 벨라 바지리아 글로벌 TV부문 총괄을 인용해 "2018년 이후 넷플릭스의 비영리권 콘텐츠 시청률이 71%, 미국의 한국드라마 시청률이 200% 각각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내연에도 한국드라마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 관측과 함께 내년 공개되는 8편을 기대작으로 소개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 '고요의 바다' '종이의 집' '수리남', tvN '불가살', JTBC '재벌집 막내아들', 티빙 '괴이', '우리들의 블루스'이다.

미국 CNN과 뉴욕포스트도 "올해 깜짝 놀랄 한국드라마가 시청자 마음을 사로잡았다" "문화적 시대정신을 꿰뚫었다" 등 호평을 내놨다. 독일 디 차이트는 "한국드라마의 성공이 대중문화 사상 처음으로 서구 영어권의 문화적 해계모니(패권)를 뚫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 ● '밈'까지 유행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뿐 아니라 브라질, 콜롬비아 등 남미권에서도 최근 한국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현지의 작품이 대중문화 사상 처음으로 서구 영어권의 문화적 해계모니(패권)를 뚫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드라마의 일부 장면이 온라인상에서 '밈'(유행하는 영상이나 사진)으로 활용되는 현상도 새롭게 생겼다.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서효정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통신원은 "'갯마을 차차차'의 장면이 현지 온라인상에서 패러디될 만큼 인기"라면서 "현지 미디어와 입소문을 통해 한국드라마가 주목받으며 시청자 호기심을 자극해 내연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300만 관객 '스파이더맨' 이어 '킹스맨' '매트릭스' 오늘 개봉



외화 대작으로 꼽히는 '킹스맨: 퍼스트 와이브스 에이전트'와 '매트릭스: 리저렉션'(왼쪽부터)이 22일 나란히 개봉해 연말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사진제공 |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워너브러더스코리아



## 연말 극장가는 '할리우드 잔치'

한국영화가 비운 연말 극장가가 감염병 시대 새로운 활력을 외화 대작에 기대고 있다. 연말연시 관객몰이를 노려온 일부 한국영화가 감염병의 폭발적 확산에 개봉 일정을 연기하면서 블록버스터급 외화가 극장가 흥행 분위기를 책임지게 됐다. 한때 흥망과 한국 극장가 '지분'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해온 할리우드 직배사들이 이를 지휘하고 있어 더욱 역설적이다.

### ● 할리우드 직배사, 연말 극장가 장악

15일 개봉해 7일 만인 21일 300만 관객을 돌파한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이 선두에 섰다. 할리우드 직배사 소니픽처스 코리아의 작품으로, 마블스튜디오의 슈퍼 히어로물이다.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고 흥행세를 그리고 있다. 22일 또 다른 할리우드 직배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와 워너브러더스 코리아의 '킹스맨: 퍼스트 와이브스 에이전트'와 '매트릭스: 리저렉션'이 나란히 관객을 맞는다. '킹스맨: 퍼스트 와이브스'는 2015년 '시크릿 에이전트'와 2017년 '골드 서클'에 이은 '킹스맨' 시리즈의 새 작품이

두터운 팬덤의 시리즈물 출격 속 한국영화 '킹메이커'는 개봉 연기 올해 점유율 1위 미영화에 내줄듯 영화단체, 영업시간 해제 등 요구

다. '매트릭스: 리저렉션'은 SF액션영화의 상징으로 인식된 키아누 리브스 주연, 릴리·라나 워소스키 감독의 1999년작 '매트릭스'를 잇는다. 모두 국내 두터운 팬덤을 구축해온 시리즈물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기대감을 키운다.

이런 상황에 당초 29일 개봉을 예정했던 한국영화 '킹메이커'는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자 내년 설 연휴로 일정을 미뤘다. 대신 한국영화는 한지민·강하늘·고성화·정진영·임윤아 등 '멀티 캐스팅'의 로망스물 '해피 뉴 이어'를 이날 내놓는다. 일정상 내년 초 관객몰이를 겨냥하는 셈이다.

### ● 한국영화, 어디로?

이대로라면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통합전산망이 국적별 점유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2008년에 이어 13년 만인 올해 한국영화는 미국영화에 1위 자리를 내주게 된다. 두 나라는 2003년부터 시장을 양분하며 박빙의 차이로 관객점유율 1, 2위를 다투었다. 한국영화(42.1%)가 미국영화(48.7%)에 뒤진 2008년에도 마찬가지였다. 감염병의 폭발적 확산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영화는 68.0%로 미국영화(25.7%)를 크게 앞질렀다.

하지만 올해 1월1일부터 21일 현재까지 미국영화가 58.9%의 점유율로 한국영화(31.8%)를 제쳤다. 외화 대작의 잇단 개봉도 이런 상황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한국영화계 위기감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국영상연구회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영화단체는 21일 "영화산업의 고통이 한계에 달했고,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다"면서 ▲영업시간 제한 즉시 해제 ▲코로나 사태 이후 영화업계 손실 전액 보상 ▲정부 주도 배급사 대상 개봉 지원 정책 추진 ▲임차료 및 세금 감면 혜택 등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박소담·한효주, 액션 연기로 새해 극장가 연다

박소담, '특송' 자동차 액션 예고 한효주는 '해적2' 통해 검술 등 뽐내

배우 박소담과 한효주가 현란한 액션 연기로 2022년 새해의 문을 활짝 연다. 각각 무협과 자동차 액션 장면으로 '걸크러시'의 매력을 한껏 드러내며 스크린을 통해 새로운 한 해 관객과 처음 만난다.

박소담은 내년 1월12일 개봉하는 영화 '특송'(감독 박대민·제작 엠퍼처스)을 통해 데뷔 이후 처음으로 액션 연기에 도전한다. 특송전문 드라이버가 반송 불가 수하물과 출처 불명의 거액을 우연히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추격전을 그린다. 그는 속 마힐 듯 쫓고 쫓기는 자동차 액션 신을 선보인다. 거침없이 핸들을 돌리는 드라이버의 카리스마까지 더해지면서 새로운 면모를 과시

할 것으로 보인다. 박소담은 "액션 연기는 순간순간 희열을 느낄 만큼 재미있었다"면서 도전의식에 넘쳐나는 표정이다.

21일 투자배급사 NEW는 '특송'이 26일 막을 올리는 네덜란드 로테르담국제영화에 초청됐다고 밝혔다. 영화제 헤르빈 탐스마 프로그램에서는 "흥미롭고 유쾌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입체적 영화"라면서 박소담이 "극을 완벽하게 이끌어 간다"고 밝혀 그의 연기에 대한 기대감을 더한다.

한효주는 내년 설 연휴 극장가 장악을 노린다. 출렁이는 바다 위 해적선을 이끄는 캐릭터로 검술 액션의 현란한 몸놀림을 과시한다. 2014년 866만여 관객을 불러 모은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의 후속편 격인 '해적: 도깨비 깃발'(감독 김정훈·제작 여우, 오스카10스튜디오)을 무대 삼는다. 사라진 왕실의 보물을 손에 쥐려는 해적들 사이에서



'특송' 박소담 '해적' 한효주

냉철한 판단력과 리더십으로 해적단을 이끈다.

한효주는 촬영 전 3개월여 '아크로바틱' 연기와 검술 등 액션 연기 훈련을 꾸준히 받았다. 이미 미국드라마 '트레드스톤'에서도 액션 연기를 선보인 그는 그와는 또 다른 화려함으로 스크린에 나설 기세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이하늬, 두 살 연상의 비연예인과 백년가약

결혼식 대신 혼인 서약...가족만 참석

배우 이하늬(38)가 21일 '깜짝' 결혼식을 올려 화제다.

이하늬는 이날 두 살 연상의 남자친구 이모씨와 서울 모처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이날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이 결혼식 대신 가족들만 참석한 혼인 서약식으로 부부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 등을 감안해 이 같은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늬의 남편 이씨는 미국 유학파 직장인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이하늬는 예비신랑과 함께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남편의 지인을 만나는 등 결혼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지난달 초 이하늬와 이씨의 교제 사실을 공개하며 "(이하늬)상대방이 비연예인"이라는 점을 강



이하늬

조하면서 "신상공개 정보나 과도한 관심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2006년 제50회 미스코리아 진에 선발된 이하늬는 2009년 KBS 2TV '파트너'로 연기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뮤지컬, 영화 등 무대를 가리지 않고 활약해왔다. 최근 SBS 드라마 '원 더 우먼'에서 1인 2역을 연기하며 시청자 인기를 끌었고, 내년 영화 '유령'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연예

스포츠동아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11

### 연예뉴스 HOT 5

유재석, 코로나19 완치 판정...활동 재개



유재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던 방송인 유재석이 완치 판정을 받고 다시 활동에 나선다. 21일 소속사 안테나는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유재석이 보건당국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재택치료를 마치고 이날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재석은 29일 MBC '방송연예대상' 생방송에 출연한다. 또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촬영도 조만간 재개할 예정이며, SBS '런닝맨'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 진행도 다시 시작한다.

한류스타 김수현 '디지털 휴먼'으로 제작된다



김수현

배우 김수현이 디지털 휴먼으로 제작된다. 디지털 휴먼은 3D 기술로 구현된 가상 인간으로, 실제 사람과 같은 외형에 다양한 표정을 구사할 수 있다. 21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의 디지털 휴먼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향후 엔터테인먼트, 영화, 광고 등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타가 디지털 휴먼으로 제작되기는 처음이다. 김수현의 디지털 휴먼은 피부와 근육, 음성 등의 신체적 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나이의 모습으로 제작된다.

나문희, 데뷔 최초로 예능 '진격의 할매' 고정



나문희

배우 나문희(80)가 데뷔 60년 만에 처음으로 예능프로그램 고정 출연자로 나선다. 21일 채널S는 "나문희와 김영옥, 박정수가 내년 1월 방영하는 '진격의 할매'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세 사람이 진로, 연애, 결혼 등을 고민하는 시청자들을 상담해주는 과정을 담는다. 1961년 MBC 라디오 1기 공채 성우로 데뷔한 나문희는 영화 '오! 문희' '수상한 그녀', 드라마 '나빌레라' '디어 마이 프렌즈' 등에 출연하며 친근한 매력을 과시해왔다.

레인보우 지속, 기부자 모임 '나눔리더' 가입



레인보우 지속

연말을 맞아 스타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21일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결구를 레인보우의 멤버 지속이 기부자 모임 '나눔리더'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나눔리더'는 1년 내 100만원 이상을 기부한 개인기부자를 뜻한다. 지속은 개인 유튜브 채널 '오지랖'을 통해 '나눔리더'가 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하는 과정을 그렸다. 이날 개그맨 김재우도 아내 조유리 씨와 함께 한부모 장애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밀알복지재단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민중화 단체 "설강화"는 명백한 왜곡 의도



설강화

시청자들로부터 '역사 왜곡' 비판을 받고 있는 드라마 '설강화'의 방송사 JTBC가 21일 관련 입장을 냈다. JTBC는 '설강화'에 "민중화 운동은 주도하는 간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역사 왜곡과 민주화운동 폄훼 우려는 향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대부분 해소될 것이다"고 밝혔다. 방송사는 드라마가 "군부정권 시절 대선 정국을 배경으로 기득권 세력이 권력 유지를 위해 북한 정권과 야합한다는 가상의 이야기"라며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고 희생당했던 이들의 개인적 서사를 보여주는 창작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과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박종철기념사업회와 이한열기념사업회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역사적으로 무책임하고 명백한 왜곡 의도를 지닌 드라마"라고 비판했다.

편집 | 김대권 기자 bong82@donga.com